

노자

도덕경



 Bilinguator

노자
도덕경

Lao Tzu
Tao Te Ching

도덕경

장 제1

'도'는 '도'라고 불리우지만 일상적인 '도'는 아니다.
 그것을 이름 지을 수 있으나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미를 이름지은 것이다.
 따라서 '무'와 '유'는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 그러한 '무'는 그 묘한 영역을 나타내고 늘 그러한 '유'는 그 경계를 나타낸다.
 이 두가지가 함께 일컫는 그것이 현묘하고 현묘하다.
 온갖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1. The Way

The Way that can be experienced is not true;
 The world that can be constructed is not true.
 The Way manifests all that happens and may happen;
 The world represents all that exists and may exist.
 To experience without intention is to sense the world;
 To experience with intention is to anticipate the world.
 These two experiences are indistinguishable;
 Their construction differs but their effect is the same.
 Beyond the gate of experience flows the Way,
 Which is ever greater and more subtle than the world.

장 제2

천하가 모두 알듯 미를 위한 미는,
 추악하다.
 천하가 모두 알듯 선을 위한 선은.
 선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유,무는 서로 살리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로 일하고,
 말없이 가르친다.
 모든것을 만들면서도 말하지 않고,
 모든것이 생겨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것을 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으니,
 떠나지도 않는다.

2. Abstraction

When beauty is abstracted
 Then ugliness has been implied;
 When good is abstracted
 Then evil has been implied.
 So alive and dead are abstracted from nature,
 Difficult and easy abstracted from progress,
 Long and short abstracted from contrast,
 High and low abstracted from depth,
 Song and speech abstracted from melody,
 After and before abstracted from sequence.
 The sage experiences without abstraction,
 And accomplishes without action;
 He accepts the ebb and flow of things,
 Nurtures them, but does not own them,
 And lives, but does not dwell.

도덕경

장 제3

현명함을 높이지 말아,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연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말아,
 백성들이 훔치지 않게 하라.
 욕심을 드러내지 말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로써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을 순진하게 두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꾀있는 자들이 감히 행하지 못하게 하라.
 무위로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장 제4

도는 텅 빈 그릇과 같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깊어서 낮음에도 만물의 우두머리 같고.
 맑음에도 무언가 있는 것 같구나.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천제보다 앞선 것 같다.
 道, 沖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3. Without Action

Not praising the worthy prevents contention,
 Not esteeming the valuable prevents theft,
 Not displaying the beautiful prevents desire.
 In this manner the sage governs people:
 Emptying their minds,
 Filling their bellies,
 Weakening their ambitions,
 And strengthening their bones.
 If people lack knowledge and desire
 Then they can not act;
 If no action is taken
 Harmony remains.

4. Limitless

The Way is a limitless vessel;
 Used by the self, it is not filled by the world;
 It cannot be cut, knotted, dimmed or stilled;
 Its depths are hidden, ubiquitous and eternal;
 I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It comes before nature.

장 제5

천지는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풀강아지처럼 다룬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풀강아지로 다룬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힘써 비워둬만 못하다.

5. Nature

Nature is not kind;
 It treats all things impartially.
 The Sage is not kind,
 And treats all people impartially.
 Nature is like a bellows,
 Empty, yet never ceasing its supply.
 The more it moves, the more it yields;
 So the sage draws upon experience
 And cannot be exhausted.

장 제6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알 수 없는 암컷이라 한다.
 알 수 없는 암컷의 문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뿌리이다.
 있는듯 없는듯 이어지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6. Experience

Experience is a riverbed,
 Its source hidden, forever flowing:
 Its entrance, the root of the world,
 The Way moves within it:
 Draw upon it; it will not run dry.

장 제7

하늘은 넓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넓고 오래가는 것은,
 자기만이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나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밖에 두고도 결국 남는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결국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다.

7. Complete

Nature is complete because it does not serve itself.
 The sage places himself after and finds himself before,
 Ignores his desire and finds himself content.
 He is complete because he does not serve himself.

도덕경

장 제8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여 다투지 않게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낮은 곳에 머물고,
 마음은 고요하며,
 사침에 어질고,
 말이 듄직하고,
 옳아 잘 다스리고,
 일을 잘 처리하고,
 때맞춰 움직인다.
 그저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다.

장 제9

계속해서 채우는 것은 그만 두느니만 못하
 며,
 두드려 날을 세우면 오래 간직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결코 지키지 못
 하며,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방지면 자연히 허물
 을 남기게 된다.
 이루었을 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8. Water

The best of man is like water,
 Which benefits all things, and does not contend
 with them,
 Which flows in places that others disdain,
 Where it is in harmony with the Way.
 So the sage:
 Lives within nature,
 Thinks within the deep,
 Gives within impartiality,
 Speaks within trust,
 Governs within order,
 Crafts within ability,
 Acts within opportunity.
 He does not contend, and none contend against
 him.

9. Retire

Fill a cup to its brim and it is easily spilled;
 Temper a sword to its hardest and it is easily
 broken;
 Amass the greatest treasure and it is easily stolen;
 Claim credit and honour and you easily fall;
 Retire once your purpose is achieved — this is
 natural.

장 제10

마음으로 도를 안아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본능에 맡기고 부드러움에 이르러 어린아 이처럼 될 수 있는가?
 현묘함을 본 것마저 씻어내어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무위로 할 수 있는가?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것에 훤히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가?
 만물을 낳고 길러주나 낳고서도 소유하지 않고
 공을 베풀면서도 의존하지 않으며 잘 자라게 하면서도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장 제11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있으니
 그 없음에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집을 만드니
 그 없음에 집의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때문이다.

10. Harmony

Embracing the Way, you become embraced;
 Breathing gently, you become newborn;
 Clearing your mind, you become clear;
 Nurturing your children, you become impartial;
 Opening your heart, you become accepted;
 Accepting the world, you embrace the Way.
 Bearing and nurturing,
 Creating but not owning,
 Giving without demanding,
 This is harmony.

11. Tools

Thirty spokes meet at a nave;
 Because of the hole we may use the wheel.
 Clay is moulded into a vessel;
 Because of the hollow we may use the cup.
 Walls are built around a hearth;
 Because of the doors we may use the house.
 Thus tools come from what exists,
 But use from what does not.

도덕경

장 제12

화려한 치장은 사람의 눈을 멀게하고,
달콤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하며,
산해진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흥분된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금은보화는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을 치우고 배를 취한다.

장 제13

사람들은 욕구를 놀랄 정도로 받드는 구나.
그러한 큰 걱정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구나.
욕구를 놀랄 정도로 받든다는 말은 무엇인가?
욕구라는 것은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얻어도 놀란듯 하고 그것을 잃어도
놀란듯 한다.
이것이 바로 '욕구를 놀랄 정도로 받든다.'는 말이다.
'큰 걱정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큰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몸을 더 아낀다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제 몸을 바쳐 천하 위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

12. Substance

Too much colour blinds the eye,
Too much music deafens the ear,
Too much taste dulls the palate,
Too much play maddens the mind,
Too much desire tears the heart.
In this manner the sage cares for people:
He provides for the belly, not for the senses;
He ignores abstraction and holds fast to substance.

13. Self

Both praise and blame cause concern,
For they bring people hope and fear.
The object of hope and fear is the self -
For, without self, to whom may fortune and disaster occur?
Therefore,
Who distinguishes himself from the world may be given the world,
But who regards himself as the world may accept the world.

장 제14

보려하여도 보이지 않아 이를 어렵듯하다
 고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 이를 흐릿하다고
 하고,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어 이를 희미하다
 고 한다.
 이 세가지는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라, 뒤
 섞여 하나이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끝없이 이어져 구분할 수 없고,
 존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를 형상없는 형상이라 부르고,
 실체없는 모양이라 부르니,
 그저 황홀하다 한다.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옛날의 도를 얻어 지금의 일을 다루니,
 도의 시작을 짐작 수 있으므로 이를 도의 실
 마리라 부른다.

14. Mystery

Looked at but cannot be seen — it is beneath form;
 Listened to but cannot be heard — it is beneath
 sound;
 Held but cannot be touched — it is beneath feeling;
 These depthless things evade definition,
 And blend into a single mystery.
 In its rising there is no light,
 In its falling there is no darkness,
 A continuous thread beyond description,
 Lining what can not occur;
 Its form formless,
 Its image nothing,
 Its name silence;
 Follow it, it has no back,
 Meet it, it has no face.
 Attend the present to deal with the past;
 Thus you grasp the continuity of the Way,
 Which is its essence.

도덕경

장 제15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자는
 꼼꼼하고 묘하며 그윽하고 열린 사람이라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으나 억지로 말해본다.
 머뭇거리니 겨울개울을 건너는 듯 하고
 주저하니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다.
 준엄하니 손님같고
 풀어지니 얼음이 녹으려는 듯 하며
 도타우니 통나무같고
 비어있으니 계곡같으며
 혼란하니 탁한 물과 같다.
 누가 혼탁함을 고요히하여 천천히 맑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편안함을 끊임없이 움직여 천천히 생
 동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도를 가진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으
 니,
 채우지 아니하여 능히 넓게하고 새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15. Enlightenment

The enlightened possess understanding
 So profound they can not be understood.
 Because they cannot be understood
 I can only describe their appearance:
 Cautious as one crossing thin ice,
 Undecided as one surrounded by danger,
 Modest as one who is a guest,
 Unbounded as melting ice,
 Genuine as unshaped wood,
 Broad as a valley,
 Seamless as muddy water.
 Who stills the water that the mud may settle,
 Who seeks to stop that he may travel on,
 Who desires less than may transpire,
 Decays, but will not renew.

장 제16

비움의 극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라.
 모든 것은 함께 생기나, 나는 그 돌아감을 본다.
 그것들은 모두 돌아가지만, 결국 저마다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말하니 그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순리를 따르는 것을 변함없다 말하며 변함없음을 아는 것을 밝다 말한다.
 변함없음을 알지 못하면 거짓되어 나쁜 일을 하게 된다.
 변함없음을 아는것은 너그러움이고 너그러우면 공정하며,
 공정하면 널리 미치고 널리 미치는 것은 하늘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오래가니, 죽을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장 제17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도 모르겠는 자이며,
 그 다음은 부모같고 기림받는 자이고,
 그 다음은 두려운 자이며,
 그 다음은 업신여겨지는 자이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얻지 못할 뿐이다.
 넉넉하구나, 그 말을 아낌이여,
 일이 잘 풀리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 말한다.

16. Decay and Renewal

Empty the self completely;
 Embrace perfect peace.
 The world will rise and move;
 Watch it return to rest.
 All the flourishing things
 Will return to their source.
 This return is peaceful;
 It is the flow of nature,
 An eternal decay and renewal.
 Accepting this brings enlightenment,
 Ignoring this brings misery.
 Who accepts nature's flow becomes all-cherishing;
 Being all-cherishing he becomes impartial;
 Being impartial he becomes magnanimous;
 Being magnanimous he becomes natural;
 Being natural he becomes one with the Way;
 Being one with the Way he becomes immortal:
 Though his body will decay, the Way will not.

17. Rulers

The best rulers are scarcely known by their subjects;
 The next best are loved and praised;
 The next are feared;
 The next despised:
 They have no faith in their people,
 And their people become unfaithful to them.
 When the best rulers achieve their purpose
 Their subjects claim the achievement as their own.

도덕경

장 제18

큰 도가 닫히니 어짊과 바름이 얘기되고,
 앎과 밝음이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긴다.
 가족이 어울리지 못하니 치사랑과 내리사랑이
 얘기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 충신이 생긴다.

장 제19

종교를 끊고 학문을 버리면,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백배나 생긴다.
 어짊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은 부모자식같은 사이로 돌아갈 것
 이다.
 속임수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은 사라진다.
 허나 이 세가지는
 꾸미는 것이라 부족하니,
 다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바탕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지녀라.
 자신을 위하지 말고 욕심을 줄여라.

18. Hypocrisy

When the Way is forgotten
 Duty and justice appear;
 Then knowledge and wisdom are born
 Along with hypocrisy.
 When harmonious relationships dissolve
 Then respect and devotion arise;
 When a nation falls to chaos
 Then loyalty and patriotism are born.

19. Simplify

If we could abolish knowledge and wisdom
 Then people would profit a hundredfold;
 If we could abolish duty and justice
 Then harmonious relationships would form;
 If we could abolish artifice and profit
 Then waste and theft would disappear.
 Yet such remedies treat only symptoms
 And so they are inadequate.
 People need personal remedies:
 Reveal your naked self and embrace your original
 nature;
 Bind your self-interest and control your ambition;
 Forget your habits and simplify your affairs.

장 제20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공손히 대답하는 것과 대충 둘러대는 것 사
 이는 얼마나 될까.
 선과 악은 서로 얼마나 다를까.
 못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바를 나라고 두려
 워하지 않을리아 있으랴만,
 망망하구나 그 다하지 않음은.
 사람들은 희희낙낙 즐겁네,
 큰 잔치를 즐기는데,
 봄날에 누대 오르듯.
 나 홀로 담담하게 미동도 않는다,
 마치 아이가 웅알거릴줄도 모르는 것처럼,
 피곤함에 지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
 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만 남
 은듯 홀로 서있다.
 나는 바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둔하
 게도.
 사람들은 밝고 밝지만, 나는 홀로 어둡고 어
 둡다.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나는 홀로 답답하다.
 사람들은 각기 쓰임이 있지만, 나는 홀로 고
 루하고 촌스럽다.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다르니, 그저 먹고사는
 데 힘쓰리라.

20. Wandering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ssent and denial?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autiful and ugl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earsome and
 afraid?
 The people are merry as if at a magnificent party
 Or playing in the park at springtime,
 But I am tranquil and wandering,
 Like a newborn before it learns to smile,
 Alone, with no true home.
 The people have enough and to spare,
 Where I have nothing,
 And my heart is foolish,
 Muddled and cloudy.
 The people are bright and certain,
 Where I am dim and confused;
 The people are clever and wise,
 Where I am dull and ignorant;
 Aimless as a wave drifting over the sea,
 Attached to nothing.
 The people are busy with purpose,
 Where I am impractical and rough;
 I do not share the peoples' cares
 But I am fed at nature's breast.

도덕경

장 제21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른다.
 도라는 것은 그저 알수없는 것이다.
 알수없구나! 그 안에 모습이 있고,
 알수없어! 그 안에 존재가 있네.
 그윽하고 어둡구나!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것은 너무나 참되어 믿음이 간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
 으니 이로보아 모든것의 시작임을 알수있
 다.
 나는 어찌하여 모든것이 시작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이로써이다.

장 제22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게되며
 파여있으면 채워지고, 해지면 새롭게된다.
 적으면 얻게되나, 많으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원칙으
 로 삼는다.
 자신을 내보이지 않으니 밝고,
 스스로 옳다하지 않아 드러나며,
 자랑하지 않아 공이 있고,
 뽐내지 않아 오래간다.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
 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21. Accept

Harmony is only in following the Way.
 The Way is without form or quality,
 But expresses all forms and qualities;
 The Way is hidden and implicate,
 But expresses all of nature;
 The Way is unchanging,
 But expresses all motion.
 Beneath sensation and memory
 The Way is the source of all the world.
 How can I understand the source of the world?
 By accepting.

22. Home

Accept and you become whole,
 Bend and you straighten,
 Empty and you fill,
 Decay and you renew,
 Want and you acquire,
 Fulfill and you become confused.
 The sage accepts the world
 As the world accepts the Way;
 He does not display himself, so is clearly seen,
 Does not justify himself, so is recognized,
 Does not boast, so is credited,
 Does not pride himself, so endures,
 Does not contend, so none contend against him.
 The ancients said, "Accept and you become whole",
 Once whole, the world is as your home.

장 제23

말이 거의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지
 않고,
 갑작스런 비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과 땅마저 변치 않을
 수 없으니,
 하물며 사람이랴.
 따라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
 는 사람은, 도와 같아진다.
 도와 같아진 사람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얻
 게 되든 잃게 되든 그러한 상황과 함께 한
 다.
 그러한 상황 역시 도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장 제24

발 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하며,
 안짱다리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내보이는 이는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옹다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
 다.
 그것들은 도에있어서 먹다남은 밥이나 쓸
 모없는 행동과 같다.
 모든 것은 아마도 이런것을 싫어할 것이기
 에, 도를 가진 이는 결코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23. Words

Nature says only a few words:
 High wind does not last long,
 Nor does heavy rain.
 If nature's words do not last
 Why should those of man?
 Who accepts harmony, becomes harmonious.
 Who accepts loss, becomes lost.
 For who accepts harmony, the Way harmonizes
 with him,
 And who accepts loss, the Way cannot find.

24. Indulgence

Straighten yourself and you will not stand steady;
 Display yourself and you will not be clearly seen;
 Justify yourself and you will not be respected;
 Promote yourself and you will not be believed;
 Pride yourself and you will not endure.
 These behaviours are wasteful, indulgent,
 And so they attract disfavour;
 Harmony avoids them.

도덕경

장 제25

모든것이 섞여있었으니,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이었다.
 조용하고 알수없구나! 변함없이 홀로 서있네.
 두루 미치나 쉬지 않으니 우주의 어머니가 될 만하구나.
 나는 그 이름을 알지못하나, 억지로 쓰자니 도라 쓰고, 억지로 부르자니 크다고 한다.
 큰것은 가는것이요, 가는것은 널리 미치는 것이며, 널리 미치는것은 되돌아옴이다.
 그리하여 도가 크고, 하늘이 크며, 땅도 크고, 사람 또한 크다.
 우주엔 큰것이 네 개 있는데 사람도 그 한 자리를 얻는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

장 제26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뿌리다.
 이런 이유로 성인은 종일 걸어도 짐을 나누지 않으며;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보아도 편히 머물며 초연하다.
 어찌 세상의 주인으로서,
 몸으로는 천하를 가볍이 하는가?
 가벼우면 뿌리를 잃고,
 성급하면 군자를 잃는다.

25. Beneath Abstraction

There is a mystery,
 Beneath abstraction,
 Silent, depthless,
 Alone, unchanging,
 Ubiquitous and liquid,
 The mother of nature.
 It has no name, but I call it "the Way";
 It has no limit, but I call it "limitless".
 Being limitless, it flows away forever;
 Flowing away forever, it returns to my self:
 The Way is limitless,
 So nature is limitless,
 So the world is limitless,
 And so I am limitless.
 For I am abstracted from the world,
 The world from nature,
 Nature from the Way,
 And the Way from what is beneath abstraction.

26. Calm

Gravity is the source of lightness,
 Calm, the master of haste.
 A lone traveller will journey all day, watching over his belongings;
 Yet once safe in his bed he will lose them in sleep.
 The captain of a great vessel will not act lightly or hastily.
 Acting lightly, he loses sight of the world,
 Acting hastily, he loses control of himself.
 A captain can not treat his great ship as a small boat;
 Rather than glitter like jade
 He must stand like stone.

장 제27

잘 다니면 흔적이 남지않고,
 잘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다.
 잘 해야리는 이는 껴부리지 않는다.
 잘 닫으면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으며,
 잘 묶으면 밧줄을 쓰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니 사람을 버림이 없고,
 물건을 잘 구하니 물건을 버림이 없다.
 이를 일러 밝음을 입는다고 한다.
 따라서 잘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스승이고,
 잘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에게 기댄다.
 스승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대는 이를 아끼지 않으면,
 비록 알더라도 크게 모르는 바가 있으니, 이는 중요하고 알 수 없는 일이다.

27. Perfection

The perfect traveller leaves no trail to be followed;
 The perfect speaker leaves no question to be answered;
 The perfect accountant leaves no working to be completed;
 The perfect container leaves no lock to be closed;
 The perfect knot leaves no end to be unravelled.
 So the sage nurtures all men
 And abandons no one.
 He accepts everything
 And rejects nothing.
 He attends to the smallest details.
 So the strong must guide the weak,
 For the weak are raw material to the strong.
 If the guide is not respected,
 Or the material is not cared for,
 Confusion will result, no matter how clever one is.
 This is the secret of perfection:
 When raw wood is carved, it becomes a tool;
 When a man is employed, he becomes a tool;
 The perfect carpenter leaves no wood to be carved.

도덕경

장 제28

남자됨과 여자됨을 알고 또 거두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어,
 덕이 언제나 나뉘지 않으면,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희고 검은 것을 알고 또 거두어,
 천하의 모양이 된다.
 천하의 모양이 되어,
 덕이 언제나 어긋나지 않으면,
 다시 무극으로 돌아간다.
 영광스러움과 욕됨을 알고 또 거두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어,
 덕이 비로소 늘 넉넉해지면,
 다시 통나무로 돌아간다.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되고,
 성인을 그릇으로 쓰면, 장관이 된다.
 이렇기에 크게 만드는 것은 쪼개지 않는다.

장 제29

천하를 얻고자 하여 뭔가를 한다면,
 나는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뭔가 할 수가 없다.
 억지로 하면 실패할 것이고,
 잡으려 하면 잃을 것이다.
 그리하여 물건이 앞서 갈 때도 있고 따라갈
 때도 있으며,
 바람이 따듯하게 불기도 하고 차게 불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심한 것, 사치한 것, 지나
 친 것을 버린다.

28. Becoming

Using the male, being female,
 Being the entrance of the world,
 You embrace harmony
 And become as a newborn.
 Using strength, being weak,
 Being the root of the world,
 You complete harmony
 And become as unshaped wood.
 Using the light, being dark,
 Being the world,
 You perfect harmony
 And return to the Way.

29. Ambition

Those who wish to change the world
 According with their desire
 Cannot succeed.
 The world is shaped by the Way;
 It cannot be shaped by the self.
 Trying to change it, you damage it;
 Trying to possess it, you lose it.
 So some will lead, while others follow.
 Some will be warm, others cold
 Some will be strong, others weak.
 Some will get where they are going
 While others fall by the side of the road.
 So the sage will be neither wasteful nor violent.

장 제30

도를 가지고 임금을 도우려는 사람은,
 군사로 천하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일은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군사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만이 무성
 하고,
 큰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
 다.
 군사에 능한자는 이루면 곧 그치며, 감히 힘
 에 기대지 않는다.
 이루되 뽐내지 않고, 이루되 자랑하지 않고,
 이루되 교만하지 않고,
 이루되 어쩔수 없었다고 하고, 이루되 힘으
 로 누르지 않는다.
 장성하면 곧 늙는 법이므로,
 이는 도에 맞지 않는지라.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30. Violence

Powerful men are well advised not to use violence,
 For violence has a habit of returning;
 Thorns and weeds grow wherever an army goes,
 And lean years follow a great war.
 A general is well advised
 To achieve nothing more than his orders:
 Not to take advantage of his victory.
 Nor to glory, boast or pride himself;
 To do what is dictated by necessity,
 But not by choice.
 For even the strongest force will weaken with time,
 And then its violence will return, and kill it.

도덕경

장 제31

31. Armies

무릇 훌륭한 군대는 조짐이 안좋은 도구이
 니,
 만물이 종종 이것을 싫어하여, 길이 있는 이
 는 머무르지 않는다.
 군자가 머무를 땐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를 쓸 땐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군대는 조짐이 안좋은 도구이며,
 군자의 도구가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써야할 때는, 담담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겨도 좋아해서는 안된다.
 이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
 는 것이다.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해서는
 하늘 아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일은 왼쪽을 우선하고,
 안좋은 일은 오른쪽을 우선한다.
 지위가 낮은 장군은 왼쪽에 머무르고,
 지위가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머무르니,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함을 이른다.
 사람들을 죽이면, 슬픔에 울고,
 전쟁에서 이겨도,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한다.

Armies are tools of violence;
 They cause men to hate and fear.
 The sage will not join them.
 His purpose is creation;
 Their purpose is destruction.
 Weapons are tools of violence,
 Not of the sage;
 He uses them only when there is no choice,
 And then calmly, and with tact,
 For he finds no beauty in them.
 Whoever finds beauty in weapons
 Delights in the slaughter of men;
 And who delights in slaughter
 Cannot content himself with peace.
 So slaughters must be mourned
 And conquest celebrated with a funeral.

장 제32

도는 늘 이름이 없다.
 소박하고 비록 작지만,
 천하의 그 무엇도 (도를) 신하 삼을 수 없다.
 만약 왕후가 이를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스스로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모여, 단 이슬을 내리듯,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
 다.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에 걸맞는)
 이름이 생기니,
 이미 이름이 있다면,
 무릇 멈출 줄 알아야 하고,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계곡물이 강과 바다를 향하는 것과 같다.

장 제33

타인을 아는 자는 똑똑하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
 기는 자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자이고,
 힘써 해나가는 자는 의지가 있고,
 제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도 도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 산다.

32. Shapes

The Way has no true shape,
 And therefore none can control it.
 If a ruler could control the Way
 All things would follow
 In harmony with his desire,
 And sweet rain would fall,
 Effortlessly slaking every thirst.
 The Way is shaped by use,
 But then the shape is lost.
 Do not hold fast to shapes
 But let sensation flow into the world
 As a river courses down to the sea.

33. Virtues

Who understands the world is learned;
 Who understands the self is enlightened.
 Who conquers the world has strength;
 Who conquers the self has harmony.
 Who is determined has purpose;
 Who is contented has wealth.
 Who defends his home may long endure;
 Who surrenders his home may long survive it.

도덕경

장 제34

커다란 도는 널리 퍼져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것이 도에 의지하여 생기지만 드러내
 말하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져도 (그 뒤에 도가) 있음을 말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이지만 주인이 되지 않
 으며,
 늘 바램이 없으니,
 작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도에게로) 돌아가지만, 주인이
 되지 않으니,
 크다고 할 수 있다.
 끝끝내 자기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
 에,
 정말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장 제35

도를 붙잡으면, 천하가 나아간다.
 나아가도 해롭지 않으니, 편안하고 평화롭
 다.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지만,
 도는 담담하여 맛이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
 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다.

34. Control

The Way flows and ebbs, creating and destroying,
 Implementing all the world, attending to the tiniest
 details,
 Claiming nothing in return.
 It nurtures all things,
 Though it does not control them;
 It has no intention,
 So it seems inconsequential.
 It is the substance of all things;
 Though it does not control them;
 It has no exception,
 So it seems all-important.
 The sage would not control the world;
 He is in harmony with the world.

35. Peace

If you offer music and food
 Strangers may stop with you;
 But if you accord with the Way
 All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keep you
 In safety, health, community, and peace.
 The Way lacks art and flavour;
 It can neither be seen nor heard,
 But its benefit cannot be exhausted.

장 제36

줄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늘려줘야 하고,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야하
 며,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해야하
 고,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를 숨겨진 밝음이라 하는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
 긴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되고,
 나라의 이득이나 체계는 사람들에게 보여
 선 안된다.

장 제37

도는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배자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변해갈 것이다.
 그 변화를 억지로 하려하면, 나는 이름할수
 없는 소박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이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면 고요하니, 천하는 저절로 안
 정될 것이다.

36. Opposition

To reduce someone's influence, first expand it;
 To reduce someone's force, first increase it;
 To overthrow someone, first exalt them;
 To take from someone, first give to them.
 This is the subtlety by which the weak overcome
 the strong:
 Fish should not leave their depths,
 And swords should not leave their scabbards.

37. Tranquillity

The Way takes no action, but leaves nothing
 undone.
 When you accept this
 The world will flourish,
 In harmony with nature.
 Nature does not possess desire;
 Without desire, the heart becomes quiet;
 In this manner the whole world is made tranquil.

도덕경

장 제38

높은 덕은 덕답지 않아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 덕이 없다.
 높은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억지로 함이 없고,
 낮은 덕은 하려하나 억지로 함이 있다.
 높은 어짐은 행하나 억지로 하지 않음이고,
 높은 의로움은 하려하나 억지로 함이다.
 높은 예절은 하려하나 반응이 없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시킨다.
 따라서 도를 잃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으면 어짐이 나타나고
 어짐을 잃으면 의로움이 나타나고
 의로움을 잃으면 예절이 나타난다.
 무릇, 예절은 믿음과 섬김이 희미해지면 나타나
 는 첫머리인 것이고,
 미리 앎은 도를 윤색한 것일 뿐,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장부는 후덕하지 알팍하지 않으며,
 열매에 머물지 꽃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한다.

38. Ritual

Well established hierarchies are not easily uprooted;
 Closely held beliefs are not easily released;
 So ritual enthrall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rmony does not care for harmony, and so is naturally attained;
 But ritual is intent upon harmony, and so can not attain it.
 Harmony neither acts nor reasons;
 Love acts, but without reason;
 Justice acts to serve reason;
 But ritual acts to enforce reason.
 When the Way is lost, there remains harmony;
 When harmony is lost, there remains love;
 When love is lost, there remains justice;
 But when justice is lost, there remains ritual.
 Ritual is the end of compassion and honesty,
 The beginning of confusion;
 Belief is a colourful hope or fear,
 The beginning of folly.
 The sage goes by harmony, not by hope;
 He dwells in the fruit, not the flower;
 He accepts substance, and ignores abstraction.

장 제39

하나를 얻은 자라는 말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해지며,
 신은 하나를 얻어 영험해지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채워지며.
 모든 것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를 세운다.
 저 말은 그런 뜻이다.
 하늘이 맑지 않으면 갈라지게 되고,
 땅은 안정하지 않으면 못쓰는 것이며
 신은 영험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고,
 계곡은 채워지지 않으면 마를 것이며,
 모든 것은 생기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제후와 왕이 세우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귀함은 천함을 그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그 기초로 삼는다.
 따라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아, 과부,
 자식없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것이 아니고 무
 엇이겠는가?
 최고의 명예는 명예가 없는것이다.
 옥처럼 귀하게 되려하지 말고 이리저리 구
 르는 돌처럼 되라.

장 제40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비롯되나, 있
 음은 없음에서 비롯된다.

39. Support

In mythical times all things were whole:
 All the sky was clear,
 All the earth was stable,
 All the mountains were firm,
 All the riverbeds were full,
 All of nature was fertile,
 And all the rulers were supported.
 But, losing clarity, the sky tore;
 Losing stability, the earth split;
 Losing strength, the mountains sank;
 Losing water, the riverbeds cracked;
 Losing fertility, nature disappeared;
 And losing support, the rulers fell.
 Rulers depend upon their subjects,
 The noble depend upon the humble;
 So rulers call themselves orphaned, hungry and
 alone,
 To win the people's support.

40. Motion and Use

The motion of the Way is to return;
 The use of the Way is to accept;
 All things come from the Way,
 And the Way comes from nothing.

도덕경

장 제41

훌륭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한다.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어도, 긴가민가 한다.
 못난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굳이 말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며,
 평평한 도는 어그러진 듯하고,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크게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넉넉하지 못한 듯하며,
 말로 설명한 덕은 구차한 듯하고,
 성질이 참된 것은 변하는 듯하며,
 크게 모난 것은 귀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양은 형태가 없다.
 도는 숨어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스스로를) 잘 빌려주고 (일을)
 잘 이룬다.

41. Following

When the great man learns the Way, he follows it with diligence;
 When the common man learns the Way, he follows it on occasion;
 When the mean man learns the Way, he laughs out loud;
 Those who do not laugh, do not learn at all.
 Therefore it is said:
 Who understands the Way seems foolish;
 Who progresses on the Way seems to fail;
 Who follows the Way seems to wander.
 For the finest harmony appears plain;
 The brightest truth appears coloured;
 The richest character appears incomplete;
 The bravest heart appears meek;
 The simplest nature appears inconstant.
 The square, perfected, has no corner;
 Music, perfected, has no melody;
 Love, perfected, has no climax;
 Art, perfected, has no meaning.
 The Way can be neither sensed nor known:
 It transmits sensation and transcends knowledge.

장 제42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모든 것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껴안으며,
 상승하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외로움, 부덕함, 착
 하지 못함이라,
 지배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부른다.
 그래서 어떤 것은 덜어도 더해지고,
 반대로 더해도 덜어지거나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역시 가르치는
 데,
 역센 자는 곱게 죽지 못한다.
 나는 이를 금과옥조로 삼으려 한다.

장 제43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
 장 단단한 것을 부리고,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
 간다.
 나는 이를 행위없는 이득이라 부른다.
 말없는 가르침과, 행위없는 이득.
 여기까지 오는 자는 천하에 드물다.

42. Mind

The Way bears sensation,
 Sensation bears memory,
 Sensation and memory bear abstraction,
 And abstraction bears all the world;
 Each thing in the world bears feeling and doing,
 And, imbued with mind, harmony with the Way.
 As others have taught, so do I teach,
 "Who loses harmony opposes nature";
 This is the root of my teaching.

43. Overcoming

Water overcomes the stone;
 Without substance it requires no opening;
 This is the benefit of taking no action.
 Yet benefit without action,
 And experience without abstraction,
 Are practiced by very few.

도덕경

장 제44

이름과 몸 중 어느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산 중 어느것이 중요한가.
 얻음과 잃음 중 어느것이 병인가.
 그리하여 너무 사랑하면 반드시 낭비가 있
 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게된다.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끊임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갈 만 하다.

44. Contentment

Health or reputation: which is held dearer?
 Health or possessions: which has more worth?
 Profit or loss: which is more troublesome?
 Great love incurs great expense,
 And great riches incur great fear,
 But contentment comes at no cost;
 Who knows when to stop
 Does not continue into danger,
 And so may long endure.

장 제45

크게 이룬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지만,
 써도 닳지 않고,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보이지만, 써도 없어
 지지 않는다.
 정말 곧은 것은 마치 흰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정교한 것은 마치 영성한 듯 싶고,
 정말 잘하는 말은 마치 어눌한 듯 하다.
 움직임으로 추위를 이기고,
 차분함으로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를 바르게 한다.

45. Quiet

Great perfection seems incomplete,
 But does not decay;
 Great abundance seems empty,
 But does not fail.
 Great truth seems contradictory;
 Great cleverness seems stupid;
 Great eloquence seems awkward.
 As spring overcomes the cold,
 And autumn overcomes the heat,
 So calm and quiet overcome the world.

장 제46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되돌려 농
 사를 짓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는 전장에서 새끼
 를 낳는다.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큰 화는 없고,
 뭔가 얻으려는 것처럼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만족을 알아 얻는 만족감은, 항상 만
 족스럽다.

46. Horses

When a nation follows the Way,
 Horses bear manure through its fields;
 When a nation ignores the Way,
 Horses bear soldiers through its streets.
 There is no greater mistake than following desire;
 There is no greater disaster than forgetting
 contentment;
 There is no greater sickness than seeking
 attainment;
 But one who is content to satisfy his needs
 Finds that contentment endures.

장 제47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갈수록 더욱 적게 안다.
이렇듯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47. Knowing

Without taking a step outdoors
You know the whole world;
Without taking a peep out the window
You know the colour of the sky.
The more you experience,
The less you know.
The sage wanders without knowing,
Sees without looking,
Accomplishes without acting.

장 제48

배우면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서,
위함이 없음(무위)에 이른다.
무위(위함이없음)지만 못하는 것도 없다.
언제나 (일부러) 하지 않음으로서 천하를
얻지,
(일부러) 하는 수준이 되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48. Inaction

The follower of knowledge learns as much as he
can every day;
The follower of the Way forgets as much as he can
every day.
By attrition he reaches a state of inaction
Wherein he does nothing, but nothing remains
undone.
To conquer the world, accomplish nothing;
If you must accomplish something,
The world remains beyond conquest.

장 제49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착한 이를 나는 착하다 하고, 착하지 않은
이도 나는 착하다 하니, 착함을 얻고,
믿는 이를 나는 믿고, 믿기 어려운 이 또한
나는 믿으니, 믿음을 얻는다.
성인은 모두를 쓸어모으는 마음으로 천하
를 감싸안으니,
백성은 모두 눈귀를 세우고,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49. People

The sag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himself and
the world;
The needs of other people are as his own.
He is good to those who are good;
He is also good to those who are not good,
Thereby he is good.
He trusts those who are trustworthy;
He also trusts those who are not trustworthy,
Thereby he is trustworthy.
The sage lives in harmony with the world,
And his mind is the world's mind.
So he nurtures the worlds of others
As a mother does her children.

도덕경

장 제50

나옴은 태어남이고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장수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고, 요절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자도 열에 셋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도를 잘 닦는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산을 다녀도 호랑이나 코뿔소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무기에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코뿔소가 들이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호랑이가 할퀴 곳 없기 때문이며,
 무기가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장 제51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의 모양이 잡히고, 힘의 흐름이 생긴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살피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기르고 보살피고,
 이루고 성숙시키고,
 돌보고 덮어준다.
 낳되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빼가지 않으며,
 기르되 간섭하지 않으며,
 이를 그윽한 덕이라 부른다.

50. Death

Men flow into life, and ebb into death.
 Some are filled with life;
 Some are empty with death;
 Some hold fast to life, and thereby perish,
 For life is an abstraction.
 Those who are filled with life
 Need not fear tigers and rhinos in the wilds,
 Nor wear armour and shields in battle;
 The rhinoceros finds no place in them for its horn,
 The tiger no place for its claw,
 The soldier no place for a weapon,
 For death finds no place in them.

51. Nurture

The Way bears all things;
 Harmony nurtures them;
 Nature shapes them;
 Use completes them.
 Each follows the Way and honours harmony,
 Not by law,
 But by being.
 The Way bears, nurtures, shapes, completes,
 Shelters, comforts, and makes a home for them.
 Bearing without possessing,
 Nurturing without taming,
 Shaping without forcing,
 This is harmony.

장 제52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이를 천하의 어머니라 한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었으니,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기에,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
 죽을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다함이 없으나,
 구멍을 열고 일을 이루려들면, 끝내 이루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고 하며,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 빛을 쓰고 그 밝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으니,
 이를 오래감을 익히는 것이라 부른다.

장 제53

나로 하여금 조그만 알음이 있다면
 큰 도에 따르고 단지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큰 도는 매우 넓지만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나라살림은 거덜나고 밭은 거칠고
 곳간은 비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실컷 먹고 쓰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을
 일컬어 도둑의 치레이니 도가 아니니라.

52. Clarity

The origin of the world is its mother;
 Understand the mother, and you understand the child;
 Embrace the child, and you embrace the mother,
 Who will not perish when you die.
 Reserve your judgments and words
 And you maintain your influence;
 Speak your mind and take positions
 And nothing can save you.
 As observing detail is clarity,
 So maintaining flexibility is strength;
 Use the light but shed no light,
 So that you do yourself no harm,
 But embrace clarity.

53. Difficult Paths

With but a small understanding
 One may follow the Way like a main road,
 Fearing only to leave it;
 Following a main road is easy,
 Yet people delight in difficult paths.
 When palaces are kept up
 Fields are left to weeds
 And granaries empty;
 Wearing fine clothes,
 Bearing sharp swords,
 Glutting with food and drink,
 Hoarding wealth and possessions —
 These are the ways of theft,
 And far from the Way.

도덕경

장 제54

잘 지어진 것은 뽑히지 않고,
 잘 감싸진 것은 벗겨지지 않으니,
 자손들이 모시기를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닦으면 그 덕이 참되지고,
 집안을 닦으면 그 덕에 남음이 생기고,
 동네를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고,
 나라를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지며,
 세상을 닦으면 그 덕이 넓어진다.
 그리하여 나로 남을 보고,
 내 집으로 남의 집을 보고,
 우리 동네로 남의 동네를 보고,
 우리 나라로 다른 나라를 보며,
 나의 세상으로 다른 세상을 본다.
 나는 어찌하여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
 는가? 이로써이다.

장 제55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비유하자면 어린아
 이같다.
 독벌레가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덮치지
 않고, 힘센 새도 채가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뼈도 약하고 근육도 부드럽지
 만 단단히 준다.
 남녀간의 교합은 모르지만 고추가 단단해
 지는 것은 정기의 지극함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의 지
 극함이다.
 조화를 아는 것은 오래간다 부르고,
 오래감을 아는 것은 밝다 부르고,
 생을 더하는 것은 상서롭다 부르나,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은 강하다 부른다.
 모든 것은 강해지면 곧 늙으니 이를 도가 아
 니라고 한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그친다.

54. Cultivate Harmony

Cultivate harmony within yourself, and harmony
 becomes real;
 Cultivate harmony within your family, and harmony
 becomes fertile;
 Cultivate harmony within your community, and
 harmony becomes abundant;
 Cultivate harmony within your culture, and
 harmony becomes enduring;
 Cultivate harmony within the world, and harmony
 becomes ubiquitous.
 Live with a person to understand that person;
 Live with a family to understand that family;
 Live with a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community;
 Live with a culture to understand that culture;
 Live with the world to understand the world.
 How can I live with the world?
 By accepting.

55. Soft Bones

Who is filled with harmony is like a newborn.
 Wasps and snakes will not bite him;
 Hawks and tigers will not claw him.
 His bones are soft yet his grasp is sure,
 For his flesh is supple;
 His mind is innocent yet his body is virile,
 For his vigour is plentiful;
 His song is long-lasting yet his voice is sweet,
 For his grace is perfect.
 But knowing harmony creates abstraction,
 And following abstraction creates ritual.
 Exceeding nature creates calamity,
 And controlling nature creates violence.

장 제56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구멍을 막고, 문을 잠그고,
 날카로움을 꺾고, 어지러움을 풀고,
 빛남을 다스리고, 먼지와 함께하니,
 이를 알수없게 같아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못하
 며,
 이롭게도 해롭게도 못하고
 귀하게도 천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하에 귀한것이 된다.

56. Impartiality

Who understands does not preach;
 Who preaches does not understand.
 Reserve your judgments and words;
 Smooth differences and forgive disagreements;
 Dull your wit and simplify your purpose;
 Accept the world.
 Then,
 Friendship and enmity,
 Profit and loss,
 Honour and disgrace,
 Will not affect you;
 The world will accept you.

도덕경

장 제57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략으로 군
대를 이끌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천하를 잡는다.
나는 어찌하여 그러함을 아는가? 이로써이
다.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
들은 두루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물건이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가 늘고 교활해지면 기이한
물건은 더욱 생겨날 뿐이고,
법과 명령이 명백해지면 도적이 늘어날 뿐
이다.
그리하여 성인이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백성은 스스로 변
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올바르게
되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순
박해지더라.

57. Conquer with Inaction

Do not control the people with laws,
Nor violence nor espionage,
But conquer them with inaction.
For:
The more morals and taboos there are,
The more cruelty afflicts people;
The more guns and knives there are,
The more factions divide people;
The more arts and skills there are,
The more change obsoletes people;
The more laws and taxes there are,
The more theft corrupts people.
Yet take no action, and the people nurture
eachother;
Make no laws, and the people deal fairly with
eachother;
Own no interest, and the people cooperate with
eachother;
Express no desire, and the people harmonize with
eachother.

장 제58

다스림이 어둡고 답답한데도, 백성은 순박,
 질박하고,
 다스림이 꼼꼼하고 자상한데도, 백성은 모
 자란다 아우성이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는게로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해진 것은 없다.
 올바름이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것이 다시
 요망해지니,
 백성들이 미혹된지 이미 오래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방정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청렴하지만
 상처입히지 않고,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
 시지 않다.

장 제59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는, 검
 소함만한 것이 없다.
 그저 검소해야 하는 것이니, 이를 '먼저 한
 다'고 부른다.
 '먼저 한다'는 것은 덕을 거둬 쌓는 것이다.
 덕을 거둬 쌓다보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
 다.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끝을 모
 른다는 것이다.
 끝을 모를 정도라면, 한 나라를 얻을만 하
 다.
 나라를 얻어 그 어미가 되면, 오래갈만 하
 다.
 이를 '뿌리가 깊고 단단히 뻗어, 오래 살고
 길게 볼 수 있는' 도라 부른다.

58. No End

When government is lazy and informal
 The people are kind and honest;
 When government is efficient and severe
 The people are discontented and deceitful.
 Good fortune follows upon disaster;
 Disaster lurks within good fortune;
 Who can say how things will end?
 Perhaps there is no end.
 Honesty is ever deceived;
 Kindness is ever seduced;
 Men have been like this for a long time.
 So the sage is firm but not cutting,
 Pointed but not piercing,
 Straight but not rigid,
 Bright but not blinding.

59. Restraint

Manage a great nation as you would cook a delicate
 fish.
 To govern men in accord with nature
 It is best to be restrained;
 Restraint makes agreement easy to attain,
 And easy agreement builds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sufficient harmony no resistance will arise;
 When no resistance arises, then you possess the
 heart of the nation,
 And when you possess the nation's heart, your
 influence will long endure:
 Deeply rooted and firmly established.
 This is the method of far sight and long life.

도덕경

장 제60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삶듯 한다.
도로써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힘을 못쓴다.
귀신도 힘을 못쓰니, 그 힘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 힘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니, 성인 역시
사람을 상하게 못한다.
귀신도 성인도 사람을 상하게 못하므로, 덕
이 사람에게 돌아간다.

장 제61

큰 나라는 아래로 흘러간다.
천하가 만나는 것이니 천하의 암컷이다.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아래가 되
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아래가 되면, 큰 나
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얻어서 낮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낮
기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을 아울러 기르
는 것 뿐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 섬
기려는 것 뿐이니,
무릇 두 나라가 각자 이루고자하는 것을 얻
으려면,
마땅히 큰 나라가 낮추어야 한다.

60. Demons

When you use the Way to conquer the world,
Your demons will lose their power to harm.
It is not that they lose their power as such,
But that they will not harm others;
Because they will not harm others,
You will not harm others:
When neither you nor your demons can do harm,
You will be at peace with them.

61. Submission

A nation is like a hierarchy, a marketplace, and a
maiden.
A maiden wins her husband by submitting to his
advances;
Submission is a means of union.
So when a large country submits to a small country
It will adopt the small country;
When a small country submits to a large country
It will be adopted by the large country;
The one submits and adopts;
The other submits and is adopted.
It is in the interest of a large country to unite and
gain service,
And in the interest of a small country to unite and
gain patronage;
If both would serve their interests,
Both must submit.

장 제62

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
 착한 이의 보배지만, 착하지 않은 이도 간직
 하고 있다.
 아름다운 말은 천냥빛도 값고, 존경스러운
 행동은 사람들 마음에 남을 수 있다.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어찌 버릴 수 있겠는
 가.
 그래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두었다.
 비록 옥을 바친 뒤 마차를 바친다 하더라도,
 꿰어앉아 이 도를 올림만 못하다.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
 가.
 도를 얻으면 죄가 있어도 용서받기 때문이
 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것이 된다.

장 제63

'위하지 않음'을 하고,
 '일없음'을 일삼고,
 '맛이 없음'을 맛보라.
 큰것을 작게, 많은 것을 적게, 원한은 덕으
 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그리고,
 큰 일은 세세한 것부터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부터 생
 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것부터 만들
 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아,
 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무릇 가벼운 승락은 믿음이 적기 마련이고
 쉬운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많다.
 그리하여 성인은 다만 모든 것을 어렵게 여
 겨,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62. Sin

The Way is the fate of men,
 The treasure of the saint,
 And the refuge of the sinner.
 Fine words are often borrowed,
 And great deeds are often appropriated;
 Therefore, when a man falls, do not abandon him,
 And when a man gains power, do not honour him;
 Only remain impartial and show him the Way.
 Why should someone appreciate the Way?
 The ancients said, "By it, those who seek may easily
 find,
 And those who regret may easily absolve"
 So it is the most precious gift.

63. Difficulty

Practice no-action;
 Attend to do-nothing;
 Taste the flavorless,
 Magnify the small,
 Multiply the few,
 Return love for hate.
 Deal with the difficult while it is yet easy;
 Deal with the great while it is yet small;
 The difficult develops naturally from the easy,
 And the great from the small;
 So the sage, by dealing with the small,
 Achieves the great.
 Who finds it easy to promise finds it hard to be
 trusted;
 Who takes things lightly finds things difficult;
 The sage recognizes difficulty, and so has none.

도덕경

장 제64

64

안정된 것은 지니기 쉽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피하기 쉽고,
 연한 것은 녹기 쉽고,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해야하고, 어지럽지 않았을 때 다스려야 한다.
 아름답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것에서 생겨나고,
 구층 누대도 바닥다지기로부터 일어나며,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잃는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하지 않고,
 잡으려하지 않으니 잃지 않는다.
 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다 해놓고 실패한다.
 처음처럼 끝까지 신중하면, 일에 실패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원하지 않음'을 원하여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배워 못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끔 도우나 감히 억지로 하지 않는다.

64a. Care at the Beginning

What lies still is easy to grasp;
 What lies far off is easy to anticipate;
 What is brittle is easy to shatter;
 What is small is easy to disperse.
 Yet a tree broader than a man can embrace is born of a tiny shoot;
 A dam greater than a river can overflow starts with a clod of earth;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at the spot under one's feet.
 Therefore deal with things before they happen;
 Create order before there is confusion.

64b. Care at the End

He who acts, spoils;
 He who grasps, loses.
 People often fail on the verge of success;
 Take care at the end as at the beginning,
 So that you may avoid failure.
 The sage desires no-desire,
 Values no-value,
 Learns no-learning,
 And returns to the places that people have forgotten;
 He would help all people to become natural,
 But then he would not be natural.

장 제65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자는,
 백성을 밝게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들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꾀를 많
 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꾀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적이 되고,
 꾀를 내지 않고 다스리면 나라의 복이 된다.
 나라의 적과 복을 알아야 본보기가 되고,
 그 본보기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있는 것을
 '그윽한 덕'이라 부른다.
 '그윽한 덕'은 깊고도 멀어 사물과는 반대편
 에 있으니,
 끝내 큰 순리에 이른다.

장 제66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물이 흘러갈 수 있다.
 그리하여 성인이 사람들 위에 오르려고 하
 면 반드시 그 말을 낮추고,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면, 반드시 그 몸을
 뒤로 뺀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인이 위에 있어도 무겁
 게 느끼지 않으며,
 성인이 앞에 있어도 해롭다고 느끼지 않는
 다.
 따라서 천하사람은 성인을 즐겁게 추대하
 지 싫어하지 않는다.
 성인은 다투지 않으니 천하사람은 성인과
 다투지 않는다.

65. Subtlety

The ancients did not seek to rule people with
 knowledge,
 But to help them become natural.
 It is difficult for knowledgeable people to become
 natural;
 So to use law to control a nation weakens the
 nation,
 But to use nature to control a nation strengthens
 the nation.
 Understanding these two paths is understanding
 subtlety;
 Subtlety runs deep, ranges wide,
 Resolves confusion and preserves peace.

66. Lead by Following

The river carves out the valley by flowing beneath
 it.
 Thereby the river is the master of the valley.
 In order to master people
 One must speak as their servant;
 In order to lead people
 One must follow them.
 So when the sage rises above the people,
 They do not feel oppressed;
 And when the sage stands before the people,
 They do not feel hindered.
 So the popularity of the sage does not fail,
 He does not contend, and no one contends against
 him.

도덕경

장 제67

천하는 나의 도가 커서 닮은 것이 없다고 한다.
크기 때문에 아마 닮은 것이 없는듯 싶다.
무언가와 닮았었다면 오래 지날수록 자잘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나에겐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지켜서 소중히 여긴다.
첫 번째는 자애로움이고,
두 번째는 검소함이며,
세 번째는 감히 천하의 사람 앞에 먼저 나서지 않음이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능히 널리 베풀 수 있으며,
천
하보다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아 큰 그릇을 이루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자애로움을 버린 채 용감해지려 하고,
검소함을 버린 채 널리 베풀려 하며,
다른 사람들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먼저 나서려하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
무릇 자애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 지키면 견고해진다.
하늘이 그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애로 지켜 줄 것이다.

67. Unimportance

All the world says,
“I am important;
I am separate from all the world.
I am important because I am separate,
Were I the same, I could never be important.”
Yet here are three treasures
That I cherish and commend to you:
The first is compassion,
By which one finds courage.
The second is restraint,
By which one finds strength.
And the third is unimportance,
By which one finds influence.
Those who are fearless, but without compassion,
Powerful, but without restraint,
Or influential, yet important,
Cannot endure.

장 제68

훌륭한 용사는 무예가 세 보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다른 이를 잘 부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이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 부리는 힘이라 하며,
 하늘과 짝한다고 하는데
 이는 옛날의 지극한 도이다.

장 제69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선제공격은 하지 않으니 다만
 끌려갈 뿐이다.
 감히 한뼘도 진군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
 나절이나 물러선다."
 이를 일러 진 없는 행군, 팔 없이 휘두르는
 주먹,
 없는 적을 무찌름, 없는 병사를 잡음이라고
 한다.
 적을 가볍게 보는 것처럼 큰 화가 없으니,
 적을 가볍게 보면 내 보배를 거의 잃을것이
 다.
 그러므로 병사를 서로 다룰 때, 슬퍼하는 자
 가 이기는 법인게다.

68. Compassion

Compassion is the finest weapon and best defence.
 If you would establish harmony,
 Compassion must surround you like a fortress.
 Therefore,
 A good soldier does not inspire fear;
 A good fighter does not display aggression;
 A good conqueror does not engage in battle;
 A good leader does not exercise authority.
 This is the value of unimportance;
 This is how to win the cooperation of others;
 This to how to build the same harmony that is in
 nature.

69. Ambush

There is a saying among soldiers:
 It is easier to lose a yard than take an inch.
 In this manner one may deploy troops without
 marshalling them,
 Bring weapons to bear without exposing them,
 Engage the foe without invading them,
 And exhaust their strength without fighting them.
 There is no worse disaster than misunderstanding
 your enemy;
 To do so endangers all of my treasures;
 So when two well matched forces oppose
 each other,
 The general who maintains compassion will win.

도덕경

장 제70

내 말은 참으로 알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쉬운데,
 천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한다.
 말에는 요지가 있고, 일에도 핵심이 있다.
 무릇 요지도 핵심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나라는 자가 귀해진 다.
 그래서 성인은 벼옷을 입고도 옥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장 제71

알고도 알지못함은 좋지만 알지못하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이라 여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 문제가 없는 것은 병을 병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70. Individuality

My words are easy to understand
 And my actions are easy to perform
 Yet no other can understand or perform them.
 My words have meaning; my actions have reason;
 Yet these cannot be known and I cannot be known.
 We are each unique, and therefore valuable;
 Though the sage wears coarse clothes, his heart is jade.

71. Limitation

Who recognizes his limitations is healthy;
 Who ignores his limitations is sick.
 The sage recognizes this sickness as a limitation.
 And so becomes immune.

장 제72

백성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억압에 이르게 된다.
 그들의 집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을 싫어하지 마라.
 백성을 싫어하지 않을 때에야 백성도 싫어하지 않는다.
 성인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장 제73

과감함에 용감하면 죽고, 과감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산다.
 이 두가지의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도 과감함에 용감한 것을 꺼리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알아들으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느긋하면 서도 잘 피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듯 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

72. Revolution

When people have nothing more to lose,
 Then revolution will result.
 Do not take away their lands,
 And do not destroy their livelihoods;
 If your burden is not heavy then they will not shirk it.
 The sage maintains himself but exacts no tribute,
 Values himself but requires no honours;
 He ignores abstraction and accepts substance.

73. Fate

Who is brave and bold will perish;
 Who is brave and subtle will benefit.
 The subtle profit where the bold perish
 For fate does not honour daring.
 And even the sage dares not tempt fate.
 Fate does not attack, yet all things are conquered by it;
 It does not ask, yet all things answer to it;
 It does not call, yet all things meet it;
 It does not plan, yet all things are determined by it.
 Fate's net is vast and its mesh is coarse,
 Yet none escape it.

도덕경

장 제74

백성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겠는가.
만약 백성이 언제나 죽음을 겁내게 하여 나쁜 짓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붙잡아 죽이겠다, 누가 감히 그러한가.
죽임을 맡은 자는 언제나 따로 있어,
만약 죽임을 맡은 자를 대신하여 죽인다면,
이를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이라 한다.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자 중에,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자는 드물다.

장 제75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억지로 뭔가 하려들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위에서 자신들의 삶만 두텁게 여기기 때문이다.
무릇 삶을 억지로 꾸려나가지 않으려는 자가 삶을 귀히 여기는 자보다 현명하다.

74. Execution

If people were not afraid of death,
Then what would be the use of an executioner?
If people were only afraid of death,
And you executed everyone who did not obey,
No one would dare to disobey you.
Then what would be the use of an executioner?
People fear death because death is an instrument of fate.
When people are killed by execution rather than by fate,
This is like carving wood in the place of a carpenter.
Those who carve wood in place of a carpenter
Often injure their hands.

75. Rebellion

When rulers take grain so that they may feast,
Their people become hungry;
When rulers take action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Their people become rebellious;
When rulers take lives so that their own lives are maintained,
Their people no longer fear death.
When people act without regard for their own lives
They overcome those who value only their own lives.

장 제76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단단하고 억세다.
 모든 풀과 나무가 날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억센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리하여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자리잡는다.

장 제77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 같구나.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올리며,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탠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는 것이다.
 사람의 도는 자연스럽지 않아, 부족한 것에서 덜어 넉넉한 쪽에 보탠다.
 누가 넉넉한 곳의 것들로 천하를 받들 수 있는가.
 오직 도를 가진 이 뿐이다.
 그래서 성인은 실천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이루되 그 안에서 안주하거나,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76. Flexibility

A newborn is soft and tender,
 A crone, hard and stiff.
 Plants and animals, in life, are supple and succulent;
 In death, withered and dry.
 So softness and tenderness are attributes of life,
 And hardness and stiffness, attributes of death.
 Just as a sapless tree will split and decay
 So an inflexible force will meet defeat;
 The hard and mighty lie beneath the ground
 While the tender and weak dance on the breeze above.

77. Need

Is the action of nature not unlike drawing a bow?
 What is higher is pulled down, and what is lower is raised up;
 What is taller is shortened, and what is thinner is broadened;
 Nature's motion decreases those who have more than they need
 And increases those who need more than they have.
 It is not so with Man.
 Man decreases those who need more than they have
 And increases those who have more than they need.
 To give away what you do not need is to follow the Way.
 So the sage gives without expectation,
 Accomplishes without claiming credit,
 And has no desire for ostentation.

도덕경

장 제78

천하의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물만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물이상이 없으니,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
 천하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자가 없으나, 실천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말하길,
 나라의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자를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부르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해내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 부른다.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듯 하다.

장 제79

큰 원망은 화해시켜도
 꼭 남은 미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참하다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때문에 성인은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쌓은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쌓은 것이 없으면 세금을 맡는다.
 하늘의 도는 (따로) 친함이 없지만,
 언제나 선인과 함께 한다.

78. Yielding

Nothing in the world is as soft and yielding as water,
 Yet nothing can better overcome the hard and strong,
 For they can neither control nor do away with it.
 The soft overcomes the hard,
 The yielding overcomes the strong;
 Every person knows this,
 But no one can practice it.
 Who attends to the people would control the land and grain;
 Who attends to the state would control the whole world;
 Truth is easily hidden by rhetoric.

79. Reconciliation

When conflict is reconciled, some hard feelings remain;
 This is dangerous.
 The sage accepts less than is due
 And does not blame or punish;
 For harmony seeks agreement
 Where justice seeks payment.
 The ancients said: "nature is impartial;
 Therefore it serves those who serve all."

장 제80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수십 수백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멀리 이사하
 지 않게 하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이 다시 끈을 묶어 쓰게 하면,
 달게 먹고,
 아름답게 입고,
 편히 머물고,
 즐겁게 산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은 늙어 죽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장 제81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참한 이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이는 참하지 않다.
 아는 이는 넓지 않고,
 넓은 이는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지 않으니,
 이미 다른 이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가
 지며,
 이미 다른 이에게 주기 때문에 자기는 더 많
 다.
 하늘의 도는 해롭지 않고 이로우며,
 성인의 도는 싸우지 않고 이룬다.

80. Utopia

Let your community be small, with only a few
 people;
 Keep tools in abundance, but do not depend upon
 them; Appreciate your life and be content with your
 home;
 Sail boats and ride horses, but don't go too far;
 Keep weapons and armour, but do not employ
 them;
 Let everyone read and write,
 Eat well and make beautiful things.
 Live peacefully and delight in your own society;
 Dwell within cock-crow of your neighbours,
 But maintain your independence from them.

81. The Sage

Honest people use no rhetoric;
 Rhetoric is not honesty.
 Enlightened people are not cultured;
 Culture is not enlightenment.
 Content people are not rich;
 Riches are not contentment.
 So the sage does not serve himself;
 The more he does for others, the more he is
 satisfied;
 The more he gives, the more he receives.
 Nature flourishes at the expense of no one;
 So the sage benefits all men and contends with
 none.



Больш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
More bilingual books on bilinguator.com
Więcej dwujęzycznych książek na bilinguator.com
Больше книг-билингв на bilinguator.com
Більше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

2024